

## 한 중국인 유학생의 체육학 석사과정 경험에 관한 협력적 자문화기술지

장 사오항  
경상국립대학교 석사과정  
홍 덕 기\*  
경상국립대학교 부교수

---

###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한 중국인 유학생인 연구자이자 연구참여자 '나'의 체육학 전공 석사과정 경험을 들여다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력적 자문화기술지를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자료는 연구자의 1년간 대학원 생활과 관련한 연구일지, SNS 자료, 수업관련 자료와 선행연구 등 관련 문헌을 수집했다. 수집된 자료는 내용분석과 영역분석을 통해 하위범주를 도출했다. 연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다각도 검증, 전문가 협의회, 구성원 간 검토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중국인 유학생의 체육학 석사과정 경험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보 연구자 입문(시간적 관점)'은 '낯선 이방인의 대학원 적응기'와 '유학생으로서 논문작성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문공동체 형성(관계적 관점)'은 '지도교수와 나: 학문적 동반(道伴)', '대학원 동료와 나: 또 하나의 가족', '내가 바라보는 나: 여전히 이방인'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제언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석사과정 경험의 의미와 향후 후속 연구주제를 제시했다. 본 연구 결과가 국내 체류하는 해외 유학생의 대학원 생활 경험을 폭넓게 이해하고 외국인 대학원생의 학문입문과정과 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중국인 유학생, 협력적 자문화기술지, 학문공동체, 대학원 교육, 체육학

---

---

\* 교신저자(deockkihong@gnu.ac.kr)

## 1. 서론

최근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04년 기준 1만 6,832명에서 2019년 기준 4월 16만 165명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0). 그중에 중국인 유학생은 7만 1,067명(44.37%)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유학 기간에 따라 경제적 문제나 향수병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전규미·전용수, 2019; Gu, Schweisfurth & Day, 2010). 외국인 유학생의 수와 체류 기간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삶과 문화를 주제로 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김재은·윤필규·이민선, 2017; 박성원·신동일, 2014; 최경식, 2019). 외국인 유학생의 삶과 문화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언어적 측면과 적응과정 측면으로 분류된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어 학습이다. 능숙하지 못한 한국어 능력은 학업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 생활 및 문화를 비롯한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박성원·신동일, 2014). 한편, 외국인 유학생은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차별을 경험하기도 한다(권양이, 2008; 최경식, 2019). 이는 유학생들의 학업에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김재은·윤필규·이민선, 2017). 대학원 과정은 학술적 글쓰기 능력과 학문공동체 내에서의 원활한 관계 형성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학문공동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박성원·신동일, 2014).

체육학 분야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연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강은석·문영재·허승은, 2019; 김우석, 2013; 김우성·소영, 2015; 이경렬, 2020; 최현희·김우석, 2020; Jingchuan & Pengfei, 2019). 예를 들어, 강은석, 문영재, 허승은(2019)은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서 체육 계열 아시아 유학생들의 삶과 생활, 진로를 탐색했다. 연구결과 첫째, 유학 동기는 전문적 스포츠 기술(지식)습득과 선진화된 스포츠 교육을 배우기 위해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유학생들의 학습경험은 한국어 습득의 어려움, 이론 학습의 어려움, 학점에 대한 고민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화 갈등의 경우 체육대학 특유의 선후배 및 음주문화를 비롯해 의사소통에 대한 갈등으로 나타났다. 유학의 최종목표는 학위 취득 후 본국으로 귀국하여 취업 혹은 학문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현희, 김우석(2020)의 연구에 따르면, 유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은 자아 정체성과 인간관계 형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렬(2020)의 연구는 스포츠 활동 참여가 유학생들의 문화적 적응과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김우성, 소영(2015)은 농구 참여 경험이 유학생들의 유학 생활, 적응과정에 긍정적 의미를 주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언어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생의 유학 적응과정에 신체활동 참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의 스포츠문화가 다르므로 한국에서의 스포츠 참여가 단순히 유학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만 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Jingchuan & Pengfei, 2019). 앞서 선행연구들은 외국인 유학생이 겪는 삶과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일인칭 내부자 관점에서 자

신의 대학원 생활 경험과 그 의미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비록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학술적인 한국어 작문이 조금 서툴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유학생 본인의 관점에서 자신의 유학과정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

자문화기술지는 개인과 문화를 탐색하는 연구 방법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이동성, 2020; Chang, 2008). 다양한 학문 분야 중 체육학 자문화기술지에 관한 연구도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강방수, 2020; 고문수, 2016; 박상봉·김동식, 2020; 최재섭, 2014; 홍덕기, 2017). 예를 들면, 강방수(2020)는 골프선수에서 골프지도자로 성장하기까지의 삶과 정체성을 탐색한 결과, 골프 지도방식, 학업 지도방식, 진로상담에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고문수(2016)는 대학교수로서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학부 전공수업 준비과정과 수업 경험을 자문화기술지로 드러냈다. 최재섭(2014)은 은퇴선수에서 연구자로의 역할 전환 경험을 심리적 변화과정, 직업경력 전환과정, 박사학위 논문작성 과정 등을 자문화기술지로 탐색했다. 홍덕기(2017)는 체육학 초임 교수로서 15년 동안 정체성 형성과정을 탐색했다.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으로 한국에서 대학원 생활을 시작한 연구자이자 연구참여자인 ‘나’의 1년간의 대학원 학업 여정을 되돌아보고 체육학 전공 초보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그 의미를 탐색했다. 연구자는 2014년 중국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에 유학 온 7년 차 유학생이다. 한국에 유학 온 후 첫 2년은 G 대학교 국제어학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했다. 이후 G 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해 학부 과정을 졸업했다. 현재는 동 대학원 체육학과 석사과정에서 스포츠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원 수업을 듣는 수강생의 관점에서 재한중국인 유학생인 ‘나’의 체육학 석사과정의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석사과정을 통해 초보 연구자로서 성장하기까지 ‘나’의 경험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 본 연구가 한국에 재학 중인 해외 유학 대학원생의 삶과 학문에 입문하는 과정을 폭넓게 이해하고 외국인 유학생 교육에 대한 향후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연구방법

자문화기술지는 개인의 문화 형성 및 적응과정을 탐색한다는 특징을 지닌다(박상봉·김동식, 2020; 박순용·장희원·조민아, 2010). 따라서 초보 연구자로 입문하는 과정을 자문화기술지로 드러내는 일은 연구자가 속한 연구공동체의 문화와 그 의미에 초점을 둔다(Samaras & Freese, 2006). 본 연구는 협력적 자문화기술지 방법을 활용했다. 연구자는 공동연구자인 지도교수와 같이 연구주제 선정, 연구 설계,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논의 등 연구 전반 및 글쓰기에 있어서 완전 협력방식으로 연구에 참여했다(김옥희·김명찬, 2017). 특히, 한국어로 학술적 글쓰기가 미숙한 외국인 유학

생인 연구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첫째, 연구자는 중국어로 작성한 연구일지 등 자료들을 한국어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둘째, 연구자는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의 초안을 중국어로 작성하고 이를 다시 한국어로 변환했다. 셋째, 연구자와 지도교수가 작성된 논문을 함께 읽으면서 연구자의 원래 의도가 한국어로 잘 표현되어 있는지를 문단마다 확인하고 글의 논리성과 완결성, 문법 등을 점검했다. 예를 들어, 중국어로 작성된 자료의 원래 의미가 한국어 변환과정에서 적절히 표현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 지도교수와 함께 한국어 글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협력적 자문화기술지는 연구자들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목적에 달성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정현철·제성준, 2021).

## 2.1. 연구자이자 연구참여자인 ‘나’와 ‘지도교수’

나는 체육 교사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재능이 있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엘리트스포츠 탁구선수로 활약하며 지역대회에 입상한 경력이 있다. 나는 체육학 전공 교수가 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 유학을 결심했고 어머니와 상의 끝에 고등학교 졸업 후 2014년 11월 한국의 G 대학교에 유학을 오게 됐다. G 대학교 대외협력과 홈페이지에 따르면, 유학생 수는 2021년 현재 약 500명 정도이며 이 중 205명이 중국인이다. 나는 G 대학교 국제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한 지 2년 만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을 달성해서 G 대학교 입학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나는 교사자격증 발급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는 G 대학교 체육교육과의 내부 규정을 뒤늦게 알았다. 아직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각종 정보습득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한국어 어학 능력향상을 위해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했다. 국어국문학과 수업에 열심히 들으며 전 학년에 걸쳐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사실 G 대학교 유학생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 중 성공적인 학업 생활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오선, 신나민(2013)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의 90% 이상이 한국어 실력 부족, 전공 공부의 어려움, 교수 및 한국 학생과의 상호작용 부족 등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의 유학 경험상 대부분의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 학생들과 같이 어울리기보다는 중국 유학생들끼리 서로 어울려서 의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보습득도 제한적이고 한국어 실력향상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한국 학생 및 담당 교수와 상호작용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대학 학부 4년의 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2020년 9월 G 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과에 스포츠교육학 전공으로 입학하게 되었다. 나는 학부에서 체육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육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했다. 또한, 대학원 생활은 학부 생활과 달리 쉽지 않았다. 나는 1년 동안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생활하며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고 이를 극복하려 노력했다. 어려움을 극

복하는데 지도교수와 대학원 동료들의 도움이 컸다. 나는 학부생에서 대학원생으로, 그리고 대학원생에서 초보 연구자로 정체성이 바뀌는 과정에서 제한 외국인 유학생인 ‘나’의 경험과 그 의미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공동연구자인 지도교수는 2018년부터 G 대학교 체육교육과에 근무하고 있다. 지도교수는 스포츠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G 대학교에 근무하기 전 미국에서 10년간 유학 경험이 있다. 지도교수는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과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에 유학 온 ‘나’의 상황을 잘 이해해주었다. 지도교수는 자문화기술지를 포함한 다양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이자 체육학 전공 대학원생으로서 일 년간 ‘나’의 경험과 그 의미를 협력적 자문화기술지로 연구해 볼 것을 권유했다.

## 2.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내가 G 대학교 대학원 입학 준비한 2020년 4월부터 대학원 입학 후 1년이 지난 2021년 6월까지이다. 한국에 유학 온 초창기 어학연수 기간과 학부 시절은 외국인 유학생이 초보 연구자로 학문에 입문하는 과정을 드러내는 데 부차적이라고 판단하여 자료수집에서 제외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일지이다. 자전적 글쓰기 유형 중 하나인 자문화기술지는 연구자 본인의 일인칭 글쓰기를 통해 인간적 대화, 감정, 자의식에 대한 이야기적 묘사를 강조한다(박상봉·김동식, 2020; Bouchner & Ellis, 2000). 연구일지는 자문화기술지의 주요 연구자료로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연구자는 자기회상(self-recall), 자기성찰(self-reflection) 및 자기관찰(self-observation)의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했다(Bullough & Pinnegar, 2001). 연구일지는 주로 대학원 과정에서 일 년간 경험한 수업 내용, 과제, 학술대회 참석, 인상에 남는 주요 사건, 대학원 동료 및 지도교수와의 대화, 자신의 느낌에 대해 기록했으며 1년 동안 학기 중 평균 주당 2회, 방학 중 주당 1회 빈도로 작성했다.

둘째, 대학원 수업 및 연구 관련 자료이다. 구체적으로 수업교재 및 수업 관련 전공 서적(총 15권), 학회논문집(2권, 총 75편), 수업 노트(총 2권), 연구자와 대학원 동료들의 수업과제 및 발표 자료(한글 파일 기준 50개)이다. 셋째, 녹음자료(음성파일 40개, 파일당 평균 2~3시간)이다. 연구자는 대학원 수업을 강의하는 교수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수업 내용을 음성으로 녹음했다. 이는 한국 어학 능력이 부족한 연구자가 수업 이후 반복해서 녹음내용을 들으며 수업을 복습하고 한국어 발음의 정확성과 발표 내용의 부족함을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수업뿐만 아니라 수업 전후 이루어진 대학원 동료들과 지도교수와의 대화 내용 중 수업이나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양해를 구하고 녹음해서 자료로 활용했다. 넷째, 대학원 일상생활과 관련된 자료이다. 구체적으로 대학원 일상생활의 경험을 드러내 줄 수 있는 SNS 기록, 유의미한 사진 및 동영상, 인터넷 메신저 채팅 내용(예: 카카오톡과 위챗 등)을 수집했다.

## 2.3.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를 날짜 및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대학원 학업 및 생활 등 연구 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총 35쪽 분량의 매트릭스로 정리했다.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문서자료), 듣고(음성자료), 보면서(사진 및 영상자료) 분석했다. 분석방식은 영역분석(domain analysis)과 분류분석(taxonomic analysis)을 활용했다(김필성·김영천, 2015; Spradley, 1980). 영역분석은 주 자료에서 자신이 잊을 수 없는 순간, 인상이 깊은 학습 내용, 자신의 학문적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 경험 등을 발췌하여 문장과 단어를 중심으로 주제별 영역을 정하고 하위 영역을 분석했다. 분류분석은 크게 학업과 생활의 두 측면으로 구분했다. 학업은 학기별, 방학, 과목별로 세분화했으며, 생활은 수업 이외에 연구자의 일상생활 중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분석했다.

## 2.4. 자료의 진실성과 타당성

자료의 진실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자의 노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자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기회상(self-recall)을 통해 지속해서 자료를 보완했다. 또한, 기억의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자료유형별 다각도 검증을 진행했다. 둘째,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를 통해 연구의 진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연구자는 학기 중 진행된 스포츠교육학실 세미나에서 연구의 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대학원 동료들의 피드백과 이해당사자들의 자료검증과정을 거쳤다. 셋째, 자문화기술지와 관련한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와 박사학위 소지자를 포함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넷째, 연구목적과 관련된 자료들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고 다양한 증거자료에 기초하여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 3. 연구결과

### 3.1. 초보 연구자 입문: 시간적 관점

#### 3.1.1. 낯선 이방인의 대학원 적응기

G 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희망하는 지도교수를 사전에 연락해서 면접을 보고 교수추천서를 받아야 지원 자격이 주어졌다. 나는 G 대학교 학부 시절 외국인 학생 유

치를 위한 근로장학생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중국인 체육학과 박사과정생의 소개로 지금의 지도교수와 연락할 수 있었다. 지도교수는 사전에 나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한국어(혹은 영어) 시험 점수 자료를 요구했다. 다음은 당시 작성했던 나의 이력서 내용이다.

저는 체육교육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기를 바라며 스포츠교육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목표는 한국에서 스포츠교육학 전공 박사학위를 받고 중국으로 돌아가 체육교육과 교수가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4월, 연구자의 대학원 입학계획서 중)

나는 지도교수와의 면접 이후 받은 대학원 입학 추천서를 통해 대학원에 합격할 수 있었다. 지도교수는 체육학 전공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나에게 대학원 입학 전 체육학 개론서를 미리 읽어올 것을 과제로 내주었다. 나는 지도교수가 추천해준 개론서를 여러 번에 걸쳐서 탐독했다. 이후, 지도교수의 연구 분야를 알아보기 위해 지도교수가 그동안 발표한 논문들을 찾아 읽었다. 또한, 대학원 도서관과 논문자료 검색 웹사이트 등을 통해 논문을 찾는 방법과 체육학의 하위 분과 학문 체계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대학원 입학 전 여름방학 동안의 공부를 통해 학부 과정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용을 학습할 수 있었다.

석사과정은 총 4학기로 졸업을 위해 최소 2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했다. 1학기 과목은 지도교수가 추천한 수업 3과목을 신청했다. 2020년 9월 시작된 대학원 첫 2주간의 수업은 COVID-19 상황으로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도교수가 담당한 ‘체육교수법’ 수업은 최근 발표된 스포츠교육학 관련 학회지 논문을 읽고 비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도교수는 수강생의 연구 관심사를 미리 파악하여 각자가 관심이 있는 연구주제를 발표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수강생들은 한 학기 동안 각자 총 10편씩의 과제를 발표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지도교수의 배려로 총 5편의 발표를 맡았다. 학기가 시작한 지 3주 만에 나의 첫 발표 차례가 왔다. 발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방법, 결과, 논의 등의 순서로 논문을 요약해서 발표하는 전반부와 논문에 대한 자신의 비평과 소감을 말하는 후반부로 구성되었다.

내가 발표한 첫 논문은 김현우(2020)의 ‘대학 운동선수의 수업 참여 실태조사 및 학습권 보장에 대한 인식 탐색’이었다. 나는 출력한 논문이 너털너털해질 정도로 밑줄을 쳐가면서 반복해서 읽었다. 발표 당일, 나는 온몸이 뻣뻣한 상태에서 상의 전체가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로 긴장하며 발표했다. 다행히도 나의 발표는 지도교수와 동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나는 발표 자료를 노트에 중국어로 적어놓고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했다. 이후, 번역기와 사전 등을 통해 여러 번 내용을 수정하고 최종 작성된 발표문을 다 외웠다. 이는 내가 학부 시절 과제를 발표할 때부터 사용한 방법으로 외국인으로서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나는 학부 시절부터 조별 발표과제나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으로서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내가 아무리 발표

를 열심히 준비해도 한국인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늘 신경이 쓰였고 같은 조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했다.

나는 유창한 한국어 발음을 위해 나의 발표 내용을 녹음하고, 반복해서 들으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대학원 수업을 들으며 교수의 강의 내용이나 토론, 피드백 등을 사진에 양해를 구하고 녹음해서 수업 후에 반복해서 들었다. 녹음한 내용을 통해 내가 발표할 내용의 암기에만 집중하느라 한국어 발음과 말하는 속도, 억양 등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의 발표는 외국 억양이 짙게 배어있었다. 발표는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순간적으로 느려지고, 외웠던 문장이 생각이 나지 않아 잠시 망설이는 과정이 반복됐다. 녹음된 내용에는 나의 실수와 긴장감, 당황스러움, 순간의 정적이 그대로 전해졌다. 녹음한 내용을 반복해서 들을수록 지도교수와 대학원 동료들이 나의 말 한마디를 조용히 경청하면서 숨소리도 조심스러워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지도교수와 대학원 동료들에게 배려를 받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닫고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지도교수의 수업 이외에 스포츠교육학을 전공하는 A 교수의 ‘체육교사교육’ 수업을 통해서도 많이 배웠다. 첫 수업에서 A 교수의 요청으로 중국의 체육교육 현황을 소개했다. 동료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체육 교사였는데 중국의 학교체육에 관심을 보인 덕분에 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 ‘체육교사교육’ 수업은 A 교수의 연구관심사인 ‘정서’와 ‘뇌’가 체육수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서적들을 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나의 수업 발표 내용 중 일부이다.

교재를 읽으며 뇌가 인간의 행동뿐 아니라 정서와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예를 들어, 남녀 뇌 구조의 차이는 체육수업에도 영향을 준다. 남학생은 집단 종목을 선호하고 공격적인 운동을 좋아하지만, 여학생은 조용한 종목을 선호한다. 나는 많은 사람이 뇌와 체육교육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지식을 쌓고 준비된 스포츠교육학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0년 11월, 대학원 수업 발표 중)

대학원 과정은 학술대회 참가도 중요했다. 지도교수의 ‘대학원 세미나’ 수업은 한 학기 동안 2번의 학회 참석 및 소감문 발표과제가 있었다. 내가 처음 참석한 학회는 한국체육학회에서 주관하는 ‘제58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대회’였다. 학술대회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온라인으로 이틀간 진행됐다. 첫째 날은 ‘학문과 교육으로서의 체육학의 미래 역할’이라는 주제에 대해 각 대학의 저명학자와 교수들의 강연이 이어졌다. 발표 주제가 체육학의 현재와 미래를 ‘학문’과 ‘교육’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내용이어서 체육학의 전반적인 상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둘째 날은 한국체육학회 16개 분과학회의 구두 및 포스터 발표와 2020 우수박사학위 논문 발표로 진행됐다. 나는 대학원 석사과정 동료의 포스터 발표를 도와 처음으로 학술대회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발표 주제는 ‘대학원 석사과정 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로 나의 관심사와 비슷해서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고 배울 수 있었다. 학술대회의 발표 및 토론은 일상생활의 한국어

대화와는 전혀 달라서 어려웠다. 그나마 다행인 건 학술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된 탓에 발표 내용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나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을 반복해서 듣고, 모르는 부분은 지도교수에게 물어보며 첫 학술대회를 무사히 마쳤다.

두 번째 학술대회 경험은 학교체육진흥회에서 주최한 ‘한국 체육교육 축전’이었다. 체육교육 축전은 전국의 체육 교사들이 수업사례를 발표하고 서로 교류하는 자리로 5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그 중, B 교수의 ‘뉴노멀 시대 체육교육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기조 발제가 인상적이었다. 코로나가 일상이 된 뉴노멀 시대에서 체육교육의 역할에 대한 발표는 교육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됐다. 다음은 B 교수의 기조 발제에 대한 나의 소감문 내용이다.

B 교수는 한국사회의 특성을 ‘끊임없는 경쟁’, ‘극단적인 개인주의’, ‘일상의 사막화’, ‘생활 리듬의 초고속화’로 정의했다. 나의 모국인 중국 사회도 비슷하다. 모두가 끊임없이 경쟁하며 자신만 생각하고, 고층빌딩이 가득한 사막에서 살고 있다. 청소년의 행복 지수는 세계 최하위이고, 건강은 갈수록 나빠진다. B 교수는 체육교육의 방향 중 하나로 ‘체찰(體察)’을 제시했다. ‘체찰’은 자신의 몸과 건강 상태를 살피는 일을 말한다. 우리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모른 채 바쁘게 살아간다. 체육교육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나도 중국에서 체육교육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언젠가 B 교수처럼 멋진 기조 발제를 하고 싶다.

(2020년 11월, B 교수 기조 발제 소감문 내용)

대학원 수업은 수강 인원이 학부 과정과 비교해 훨씬 적으며 주로 발표와 토론으로 깊이 있는 수업이 진행되어 많은 준비가 요구됐다. 대학원 첫 학기를 마치며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지만, 학술적 글쓰기와 말하기에 대한 뚜렷한 한계를 경험했다. 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주변에 도움을 구했다.

### 3.1.2. 유학생으로서 논문작성의 어려움

겨울방학 동안 지도교수는 대학원생들에게 선행논문 탐색과 자료수집을 권했다. 나는 스포츠 인권에 관심이 생겼다. 중국에서의 탁구선수 경험을 바탕으로 바라본 한국의 학생선수 육성방식과 학습권 보장 내용은 흥미롭게 느껴졌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한국인 연구참여자와 면담할 자신이 없었다. 한국의 학생선수를 면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경험한 한국의 학교운동부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다닌 내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운동부 문화의 내면을 깊이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나는 한국에 유학 온 중국 유학생 중 체육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의 삶과 문화를 연구 주제로 결정하고 지도교수를 찾아갔다. 지도교수는 연구주제를 승낙하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유의사항과 참고가 될만한 선행연구 자료를 제시해주었다.

나는 지도교수에게 인정받은 것 같아 기분 좋은 마음으로 연구실을 나와, 바로 논문작성에 매진했다. 첫 한 달 동안은 외국 유학생 관련 논문 20여 편을 읽고 논문의 서론 부분을 작성했다. 이후 연구참여자는 한국의 2개 대학 체육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6명을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여 선정했다. 나는 지도교수와 면담 질문지를 상의한 후, 1월 중순 연구참여자들이 사는 지역으로 이동해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은 중국어로 진행됐으며 각 1시간 30분씩 소요됐다. 질문은 주로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된 계기, 유학 생활의 어려운 점, 지도교수와의 관계, 대학원 수업, 친구 관계, 실험실 동료들과의 관계, 경제적 문제, 가족 관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사 작업은 일주일에 걸쳐서 녹취한 자료를 중국어로 전사하고 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료를 분석하면서 체육학 전공 중국인 유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중국에서 체육 계열 학부를 마치고 한국의 대학원에 바로 입학한 경우로 한국어 능력이 유창하지 못했다. 따라서 유학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한국인 지도교수나 대학원 동료를 찾아 상담하기보다는 한국 생활 경험이 풍부한 주변의 선배 중국인 유학생에게 먼저 도움을 구하는 등 중국인 유학생들만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대학원 수업의 경우 체육학 전공 중국인 유학생이 10명 가까이 되면서 중국인 유학생들만 별도로 수강하는 대학원 과목이 생겼다. 수업은 박사과정 중국인 유학생 선배 중 한국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지도교수를 대신해 중국말로 수업을 진행했다. 한국에 유학 온 이후에도 한국문화와 생활을 공유할 한국인 대학원생 동료를 만나기 어려워지며 한국어 능력도 향상되지 못하는 등 문화적으로 고립됐다. 나는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지도교수를 찾아갔다. 하지만, 지도교수는 내가 분석해 온 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

지도교수: OO아. 면담내용 읽어봤는데, 너무 일반적인 얘기가 많아. 좀 더 구체적인 에피소드나 사건을 물어봐야 할 것 같아. 예를 들어, 공부할 때 힘들었던 순간의 일화라던지 혹은 공부하다가 실력이 점점 늘어서 보람됐던 순간 등. 실제 논문에 인용할 좀 더 생생한 사례들이 필요해. 또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할 것 같아. 박사과정 매 학기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 과제는 뭐였는지, 배우면서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논문을 발표해보거나 학회에서 포스터, 구두 발표한 적이 있는지, 학점은 얼마를 받았는지, 학위논문 주제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등. 이런 점을 고려해서 다시 인터뷰 시도 해봐.

(2021년 2월, 첫 인터뷰 후 지도교수의 피드백 내용)

논문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은 내 인생의 첫 시도였다. 매 순간 이게 과연 논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었다. 나는 논문 한 편이 이렇게 많은 고민과 노력을 통해 탄생하는지 몰랐다. 정신없이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 어느새 3월이 되었다. 나는 두 번째 학기 수업으로 지도교수와 상의한 끝에 총 4과목(10학점)을 신청했다. 권양이(2008)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겪는 스

트레스 중 학업성취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의 경우, 학부의 강의식 수업과는 다른 토론식 대학원 수업과 과제들로 인해 압박감이 심했다. 2021년 봄의 COVID-19 상황은 작년과 비교해 나아지지 않았다. 대학원 수업은 상황에 따라서 대면수업과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혼합하는 혼성수업으로 진행됐다. 지도교수의 ‘스포츠교육학연구’ 수업은 지난 학기처럼 논문 비평가 더불어 각자 관심 분야의 연구주제로 논문을 한 편씩 완성해 투고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수업목표:

1. 최근 발표된 스포츠 교육학 관련 학회지 논문을 읽고 비평한다.
2. 자신의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논문을 작성하고 학회지에 투고한다.

(2021년 3월, ‘스포츠교육학연구’ 강의계획서 중)

지도교수는 대학원 첫 주 수업에서 학회지 논문작성 및 투고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나는 겨울방학 동안 논문의 서론 작성과 면담을 진행해서 연구에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막상 수업이 진행되며 내 연구주제가 기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가 준비한 논문이 지도교수와 동료들에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고통스러웠다. 나는 이미 면담과 전사를 마치고 자료 분석 중인 연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간의 방향과 새로운 연구주제 선정에 대한 고민 후 지도교수와 상의 끝에 새로운 연구주제를 정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나의 대학원 경험의 의미를 자문화기술지로 분석하는 것이었다. 체육 계열 학과 외국인 대학원생이 점점 증가하는 시점에서 내가 경험한 시행착오, 어려움 및 적응 과정을 되돌아보고 학문적으로 탐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생각은 많지만, 실행은 부족함!’ 지금의 내 상태다. 늘 머릿속에서 논문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만, 연구로 발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 내 연구 아이디어에 대한 자신이 없어 ‘이게 될까?’를 걱정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교수님의 말씀처럼 걱정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하단 걸 알게 됐다.

(2021년 4월, 대학원 수업 후 연구일지)

나는 대학원 첫 학기의 기억을 떠올리며 수업자료와 과제들을 다시 살펴보고 그때 당시의 느낌을 연구일지에 회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기록한 연구일지와 수집한 자료는 매주 수업에서 보고하고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의견을 구했다. 다행히 지도교수와 다른 대학원 동료들도 나의 새로운 연구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었다. 나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 적응과정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읽어보며 수집한 자료를 분석했다.

스포츠교육학 전공수업인 A 교수의 ‘체육교육과정연구’ 수업은 체육 및 팀 학습과 관련한 책을 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업에 참여한 동료들은 각자의 소감과 시사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발표했는데, 나는 한국의 학교 현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곤혹스러웠다. 수업을

듣는 대학원생의 대부분은 체육 교사였지만, 나는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으므로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나는 수업이 끝난 후 집에 돌아와서도 이 일이 마음에 걸렸는데 어머니와 영상통화에서 내 고민을 말씀드렸다.

나: 이 과목의 교수님은 학교 체육수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팀의 정체성, 팀워크, 교육과정과 같은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워 힘들어요.

어머니: 당연하지.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정상이야. 그래, 넌 체육 교사도 아니고,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잖아. 괜찮아. 천천히 배워. 지금 배우는 내용이 네가 장래에 체육교육을 지도할 때 반드시 도움이 될 거야.

(2021년 3월, 어머니와의 위챗 영상통화 내용 중)

‘체육교육과정연구’ 수업의 마지막 과제는 스포츠교육학 선행연구 초록 탐색이었다. A 교수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7년간 발표된 스포츠교육학 관련 논문을 과제로 주었다. 학생들은 모든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읽고 자신의 소감을 발표했다. 나는 이전까지 논문 한 편 당 읽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지만, 이번 과제를 통해 제목과 초록을 읽는 것만으로도 연구주제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내가 발표한 주제는 학교 체육수업 중 학생의 정서나 팀 학습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나는 한국의 학교체육 현실에 대해 기본지식이 부족했지만, 선행연구를 반복해서 읽어보며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체육 교사는 ‘체육교육의 실천가’, ‘체육문화의 전파자’, ‘학생 삶의 안내자’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내가 생각하는 훌륭한 체육 교사는 첫째, 체육에 대한 기초지식과 실기 능력을 갖춰야 한다. 둘째,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정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즉, 학생들의 행동과 심리를 잘 살피고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2021년 6월, 대학원 수업 종강 후 나의 연구일지 중)

사실 수업보다 더 어려운 건 논문작업이었다. 나는 새롭게 시작한 자문화기술지 연구에 내 모든 힘을 쏟았다. 기말고사 시험이 끝나면서부터는 매일같이 지도교수의 연구실을 찾아 자료 분석과 논문작성에 대해 상의하고 지도를 받으면서 초보 연구자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 3.2. 학문공동체 형성: 관계적 관점

#### 3.2.1. 지도교수와 나: 학문적 도반(道伴)

지도교수는 나의 대학원 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학문적 도반(道伴)’이었다. 지도교수는 자신의 유학 초창기 시절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일화와 경제적 어려움 및 보이지 않는 인종차

별 등을 어떻게 견뎠는지를 들려주고 나의 처지에 공감해주었다. 나는 지도교수의 첫 외국인 대학원 제자였다. 지도교수는 문화차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한국인 대학원생 제자보다 나를 더 세심하게 지도해주었다. 특히, 중국과 한국의 사회문화적 차이점에 대해 이해해주고 편한 수업 분위기를 형성해주어 큰 위로가 됐다. 나는 지도교수의 대학원 수업에서 내 연구주제의 진행 상황을 매주 발표했다. 한국말로 발표와 토론을 하고 학술적 글을 쓰는 과정은 단순히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다.

지도교수: 발표를 들어보니 OO이는 지난주 수업 시간에 내가 지적한 부분을 다 해왔네. 아마 남들보다 준비하는데 3배 정도는 더 걸렸을 것 같은데.

나: 논문이나 과제를 쓸 때 제가 먼저 중국어로 쓰고,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해서 밤새 작업을 합니다.

지도교수: 그렇겠지. 나도 유학 초반에는 영어가 자유롭지 않아서 고생이 많았어. 10년 정도지나니 익숙해졌지. 같은 과제를 하는데 남들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 배로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깐 포기하지 말고. OO이가 쓴 글을 읽어보니 유학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좀 몽클하네.

(2021년 4월, 지도교수의 대학원 수업 중)

지도교수는 나의 유학 생활 전반에 걸쳐 관심을 가지며 격려해 주었다. 나는 지도교수와 점점 가까워지며 수업 이외에도 나의 고민에 대해 상담하는 사이로 발전했다. 또한, 나의 부족한 학문적, 언어적 부분을 원망하기보다는 이를 받아들이고 더 나아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마음가짐을 배웠다. 지도교수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원생들의 연구주제에 대해서도 진심 어린 조언과 냉철한 비평을 아끼지 않았으며 성실하고 꼼꼼하게 논문을 지도해주었다. 내가 선택한 지금의 연구주제 선정도 유학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지도교수의 이해와 관심이 있어서 가능했다. 나는 이 논문을 작성하면서 매주 연구의 진행 과정과 고민을 지도교수와 공유했다. 나는 지도교수와 나의 관계가 단지 체육학 학문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주고받는 기능적 측면을 넘어서 동반(道伴)으로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느꼈다.

### 3.2.2. 대학원 동료와 나: 또 하나의 가족

나는 대학원 초반 스포츠교육학실의 연구공간에 자리를 배정받았다. 연구공간에는 스포츠교육학을 전공하는 10명 정도의 대학원생들을 위한 개인 독서실 책상이 마련되어 있었다. G 대학교 대학원 스포츠교육학실은 크게 일반대학원생과 교육대학원생으로 구분되었다. 일반대학원생은 나를 제외하고 모두 직업이 있으므로 일과시간에 스포츠교육학실 연구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은 모두 교육대학원생으로 이루어졌다. 나는 교육대학원생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이들은

임용시험 준비로 인해 나와 관심사가 달라서 교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장승현·하제현, 2018). 또한,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인들이 듣기에 차이가 느껴지는 ‘중국식 한국 발음’도 원활한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었을 거라 생각된다.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대학원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는 것이 불편해서 연구공간을 나왔다.

대학원 동료와의 관계는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원 생활 적응에 매우 중요하다(김서정, 2016). 나는 처음부터 대학원 동료들과 친해지려 노력했지만, 교육대학원 동료들과는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하지 못했다. 이후 일반대학원 수업을 통해 비로소 대학원 동료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물론, 문화적 차이로 인해 처음에는 서로 인사만 하고 별다른 대화 없이 수업만 듣고 가는 일이 반복됐다. 나는 한국에서 지낸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한국인 친구와 어울리는 과정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다. 지도교수는 대학원 수업에서 문화차이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고 나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줬다. 대학원 동료들도 나의 발표를 들으며 나의 노력을 인정하고 서서히 내게 손을 내밀어주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학원 동료들의 나를 향한 진심이 느껴졌다. 예를 들어, 대학원 동료들은 수업에서 내가 언어 문제로 고생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또한, 타지에서 혼자 보내는 나의 생일을 챙겨주는 등 일상생활에서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또 하나의 가족’으로 발전했다. 대학원 입학 초반에 가졌던 ‘낯설음’은 어느새 ‘익숙함’으로 바뀌며 낯선 이국땅에서 오랜만에 포근함을 느꼈다.

### 3.2.3. 내가 바라보는 나: 여전히 이방인

지도교수 및 대학원 동료들과의 긍정적 관계는 내가 학문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나는 체육학 지식과 한국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상생활을 즐길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나의 하루 일정은 주로 오전 공부, 오후 운동, 저녁 수업, 밤 연구로 이루어졌으며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외출을 자제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외로움도 커졌다. 한국은 중국과 가깝고 비행기표도 저렴해 나는 한국에 온 후로 매년 방학 때마다 중국을 방문했었다. 하지만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이후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중국에 가지 못했다. 코로나는 일상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삶도 많이 바뀌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한국의 각 대학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도 급감했다(KBS, 2021.02.13.). 현재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해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이 있고,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고국을 방문하려 해도 ‘코로나 검사 음성 증명서’, ‘재입국 신청서류’, ‘한 달간 강제 격리’ 등 넘어야 할 벽이 많다. 2020년 추석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컸던 시기이다. 당시 추석은 공교롭게 중국의 국경절(10월 1일)과 같은 날이어서 더 외로웠다. 나는 원룸 방에 혼자 남아서 가족 및 가까운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외로움을 달랬다.

나: 외롭고 힘들어서 때로는 정말 잠이 안 올 때도 있어.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얘기 하거나 풀 때도 마땅치 않고...

친구: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내가 중국에 올 수 있으면 좋겠다.

(2021년 5월, 친구와의 위챗 대화)

한국 유학 생활의 또 다른 어려움은 경제적 측면이다. 나는 한국 유학 초반에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 하지만, 낮에는 학교 수업과 과제를 하고 밤에는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 수업과 과제를 따라가기가 벅찼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었다. 나는 대신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장학금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 가정형편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친구들이 대부분 취업해 경제적 독립을 이룬 상황에서 계속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스스로 부끄러웠다. 부모님은 타지에서 유학하는 자식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마음을 대신하셨다. 나는 마음이 아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유학 생활을 잘 건디는 것밖에 없었다.

오늘은 중국의 어린이날(6월 1일)이다. 이른 아침부터 위챗으로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을 받았다. 자식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부모의 눈에는 언제나 아이로 보이는 듯 늘 내 걱정이다. 벌써 2년 가까이 부모님 얼굴을 뵙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

(2021년 6월, 연구자의 SNS 일지)

나는 현재 G 대학교 대학원 장학금(등록금 면제)을 받고 있지만, 생활비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 한국에서 박사과정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독립은 아직 먼 얘기다. 사실, 유학 온 외국인 대학원생이 아니더라도 전일제 대학원생은 졸업 후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상황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다.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는 생각에 다시 논문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 4. 논의 및 제언

### 4.1. 논의

본 연구는 한국에 7년째 체류 중인 중국인 유학생인 '나'의 대학원 경험과 그 의미를 탐색했다. 이를 위해 협력적 자문화기술지를 활용해 '나'의 대학원 1년간 학업 및 생활 경험을 시간적, 관계적 관점에서 탐색했다.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나'의 석사과정 경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 적응을 위한 본인의 주체적 노력이다. 연구자의 경우 대학원 초반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낮선 이방인'에서 학문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수업의 객체나 타자가 아닌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제한된 언어능력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공동체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박성원, 신동일, 2014). 제한된 정보의 접근성으로 인한 수동적인 참여는 의사소통의 부재, 침묵, 혹은 비참여로 이어져 문화 부적응의 주요인이 된다. 언어학습은 언어 지식을 획득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 내부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사회화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의사소통의 제한은 학문공동체 구성원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주며 자칫 학문공동체 구성원 간 불평등한 권력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박성원·신동일, 2014).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이 문화적 충돌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문공동체 구성원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해시키고 지평을 넓히는 주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 대학원생의 학문 입문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다. 체육학 전공 대학원생의 논문작성 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학문적 글쓰기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밝히고 있다(김원정, 2019; 박대원·박종률, 2011; 이정현·박대원, 2021; 장승현·하제현, 2018). 첫째, 김원정(2019)은 지도교수의 대학원생 논문 지도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육적 의미를 탐색했다. 연구 결과, 대학원생의 연구 역량을 '연구주제 및 바람직한 연구방법론 선정 역량', '자료의 충분한 수집과 제구성 역량', '텍스트와 표상으로 표현하는 해석적 리터러시 역량', '진실성-윤리성-공유 역량'으로 제시했다. 둘째, 이정현, 박대원(2021)은 스포츠교육학 전공 대학원생의 질적 연구 경험을 탐색했다. 연구 결과,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작성 경험은 '새로운 사고 양식 경험 및 안목의 확장', '의미 구조의 변화를 통한 총체성 추구', '학술적 글쓰기를 통한 연구자로 태어나기', '질적 연구를 통해 체육교육자로 거듭나기'로 나타났다. 셋째, 장승현, 하제현(2018)은 체육 계열 교육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작성 경험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교육대학원생들은 학위논문에 요구되는 논문에 대한 이해, 방법적 지식, 글쓰기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듯이, 한국인 대학원생도 학위논문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문에 입문하는 과정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외국인 대학원생의 경우는 한국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일이 훨씬 어렵다. 외국인 대학원생들은 한국어로 학술적 글쓰기, 자료 찾기, 논리적인 목차 구성하기, 논문에 적절한 표현 사용하기, 인용하기, 연구윤리 지키기 등 논문 전반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한국논문의 기술 방식과 타 언어로 작성된 논문의 기술 방식 간의 차이로 인해 논문에 적절한 한국어 표현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학문적 글쓰기는 전문화된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이며 이는 체계적인 작문 교육을 요구한다(김선민, 2008). 따라서 외국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맞춤형 학술적 글쓰기 수업이 필요하다.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논문작성 교육은 영어권에서는 1990년대부터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외국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학술적 글쓰기 수업 과정을 분석한 사례가 있다(정다운, 2014). 정다운(2014)은 외국인 대학원생의 학술적 글쓰기 수업을 '교사 주도', '교사·학생 협력', '학생 주도'의 3단계로 개발했다. 1단계에서는 논문의 일반적인 특징

을 예시를 들어 강의식으로 설명한다. 2단계에서는 전공 분야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논문의 특징을 탐색한다. 3단계에서는 실제 논문작성과정과 구체적 피드백을 통해 연습한다.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외국인 대학원생의 연구 역량은 체계적 교육이 뒷받침될 때 효과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자는 선행연구 탐독을 통해 체육학 연구논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한국어 표현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다. 또한, 낯선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사전을 찾아보고 지도교수와 대학원 동료들에게 물어보며 정확한 표현을 익히고자 했다. 본 연구와 같은 자문화기술지 연구를 수행할 경우, 자전적 탐구의 내용이 결국 글쓰기라는 기호언어 체계에 의해 드러나므로 학문적 글쓰기 역량은 더욱 중요해진다(박세원, 2019). 연구자도 한국에서의 오랜 생활과 대학원 과정에서의 학술적 글쓰기 훈련, 대학원 동료들의 조언과 지지, 지도교수와의 협력적 글쓰기가 없었으면 한국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일을 일찍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특히, 지도교수는 연구자의 논문작성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학술적 글쓰기 과정에서 지속적인 피드백과 수정을 해주었다. 이러한 과정은 논문작성에 대한 세밀한 피드백과 오랜 시간의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셋째, 외국인 대학원생의 학문공동체 관계 형성에 대한 지지이다. 외국인 대학원생의 성공적인 유학 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학문공동체 일원으로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지지 형성이 중요하다(김서정, 2016; 이유허, 2014). 서몽선(2017)은 무용 전공 중국인 유학생 8명을 포토보이스와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해 대학 생활 적응과정에 대해 탐색했다. 그 결과, 동료와 지도교수의 도움과 지지가 적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학원 동료는 유학 생활에서 문화 적응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지도교수는 전공 실력과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언어능력은 한국인 대학원 동료와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효과적인 습득이 가능하므로 외국인 대학원생의 사회적지지를 위한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인종, 국가와 상관없이 외국인 대학원생을 학문공동체의 일원으로 편견없이 동등하게 대하는 성숙한 인식이 필요하다. 학문적 수월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공동체 내에서 외국인 대학원생은 사회문화적 편견과 언어능력으로 인해 불평등 관계에 놓이기 쉽다. 따라서, 학문공동체 구성원의 문화적 감수성과 인종차별,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전제되어야 외국인 대학원생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지지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역시 중요하다. 한국의 각 대학에서는 지속적인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려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에서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김서정, 2016; 이유허, 2014).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 체육을 전공하는 외국인 유학생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김두한, 2018). 하지만, 대학은 신입생 충원 비율에만 신경을 쓸 뿐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한 이후의 삶과 학교 적응과정에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 실제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원 문화와 학업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외국인 유학생이 언어, 문화, 학업, 경제 등 다양한 측면의 문제로 인해

중도 귀국, 졸업 불가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유경, 2014). 또한, 체육 계열 유학생들이 겪는 언어적,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학업적 어려움과 관련한 연구는 일반적인 수준에서만 제시되고 있어 어려움의 구체적 맥락을 알기 어렵다(김동기, 2017).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이 구체적으로 겪고 있는 환경적 어려움의 맥락을 고려한 정책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 4.2. 제언

본 연구는 협력적 자문화기술지 연구 방법으로 연구자이자 연구참여자인 ‘나’의 체육학 전공 대학원 석사과정 1년간의 경험과 의미를 탐색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 당사자의 관점에서 접근한 다양한 연구가 요구된다(김경오, 2013).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관점에서 자신의 유학 생활을 주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을 객체적 시각으로 접근한 전통적인 연구가 다루지 못한 생생함을 보여준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 연구대상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연구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한국에 유학을 와서 7년의 한국 생활 동안 한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 대학원생의 경우 본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한국에 대학원생으로 바로 유학을 오는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 이들은 한국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대학원 생활에 적응하는데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한국 체류 기간 및 한국문화 적응 정도에 따라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인 대학원생을 지도하고 있는 국내 교수진들의 지도 경험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대학원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지도교수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지도교수가 어떤 교육철학과 지도방식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지도하는가에 따라 학문에 입문하는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향후 외국인 대학원생의 학문입문과정과 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방수(2020). 학생프로골프선수 지도경험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교육인류학연구*, 23(3), 89-110.
- 강은석·문영재·허승은(2019). 체육계열 아시아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내러티브. *한국체육과학회지*, 28(3), 125-137.
- 고문수(2016). 대학 교수의 체육수업 운영 하루 일과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1(3), 15-32.
- 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20). 연도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수.
- 권양이(2008).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대학 초기 적응에 대한 질적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14(1), 301-333.
- 김경오(2013). 중국유학생의 제한적 신체활동과 관련된 사회생태학적 문제와 개선방안: 포토보이스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2(4), 103-116.
- 김동기(2017). 골프전공 중국유학생들의 삶에 대한 질적 탐구. *한국스포츠험치*, 15(4), 335-347.
- 김두한(2018). 한국과 중국 대학의 교육과정 경험에 대한 연구: 골프전공 유학생 중심으로. *한국스포츠험치*, 16(1), 295-306.
- 김서정(2016). 아시아 유학생의 한국 유학생생활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인류학연구*, 19(3), 153-183.
- 김선민(2008). 학문적 글쓰기의 유형, 구조, 지도 단계. *한국초등국어교육*, 38, 51-82.
- 김옥희·김명찬(2017). 상담대학원생의 '배움 경험'에 대한 협력적 자문화기술지. *질적탐구*, 3(2), 271-297.
- 김우석(2013). 스포츠를 통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22(1), 163-180.
- 김우성·소영(2015). 스포츠 활동 참가를 통한 중국유학생의 한국사회 적응기제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2, 509-520.
- 김원정(2019). 교육대학원 스포츠교육학 전공생의 논문 지도 과정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한국스포츠험치학회지*, 26(2), 159-193.
- 김재은·윤필규·이민선(2017). 한국전통문화 경험과 외국인 유학생의 사회문화적응 과정: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0), 395-419.
- 김필성·김영천(2015). 문화기술지 연구에서의 영역 분석. *질적탐구*, 1(2), 99-122.
- 김현우(2020). 대학운동선수의 수업참여실태 조사 및 학습권보장에 대한 인식 탐색.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4(4), 155-171.
- 박대원·박종률(2011). 스포츠 교육학 전공생의 질적 연구 방법 체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스포츠험치학회지*, 18(4), 81-100.
- 박상봉·김동식(2020). 스포츠교육 연구에서 자기연구: 자문화기술지를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59(1), 161-176.

- 박성원·신동일(2014). 외국인 유학생의 학문공동체 참여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7(1), 103-158.
- 박세원(2019). 자전적 탐구의 의미와 수행 방법:자아의 의식-몸-영(靈)에로의 통섭 여정. *교육인류학연구*, 22(3), 1-45.
- 박순용·장희원·조민아(2010). 자문화기술지: 방법론적 특징을 통해 본 교육인류학적 가치의 탐색. *교육인류학연구*, 13(2), 55-79.
- 서몽선(2017). 무용 전공 중국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렬(2020).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교양체육 수업 참여경험. *한국체육과학회지*, 29(5), 131-143.
- 이동성(2020). 질적연구와 자문화기술지. 제2판. 아카데미프레스.
- 이유경(2014).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원 문화와 학업 적응에 대한 연구. *이중언어학*, 55, 249-284.
- 이정현·박대원(2021). 스포츠 교육학 초보연구자의 질적 연구 경험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8(2), 167-194.
- 장승현·하제현(2018). 체육계열 교육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쓰기 경험에 관한 이야기.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2(4), 49-62.
- 전규미·전용수(2019).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습동기, 한국어 숙달도 간의 관계 연구. *MICE관광연구*, 19(1), 161-177.
- 정다운(2014).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논문 쓰기 수업사례 연구. *어문론집*, 58, 487-516.
- 정현철·제성준(2021). 통합체육 수업 개선을 위한 경험에 관한 협력적 자문화기술지.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5(4), 149-162.
- 조용환(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최경식(2019).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 1(1), 1-24.
- 최재섭(2014). 한 은퇴 운동선수의 경력전환에 따른 정체성 변화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교육인류학연구*, 17(1), 63-102.
- 최현희·김우석(2020). 유학생들의 학문진입 통로로서의 스포츠: 지방대학 아시아권 유학생을 바라본 스포츠의 교육적 기능탐색. *한국체육과학회지*, 29(1), 513-524.
- 하오선·신나민(2013). 중국인 유학생의 국내 대학 학습실태 및 학습태도에 관한 사례 연구. *교육문제연구*, 49, 23-44.
- 홍덕기(2017). 나의 삶과 교육, 그리고 학문: 재미한인 체육교육 전공 초임 교수의 학문적 정체성 형성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한국체육과학회지*, 56(2), 225-241.
- Bouchner & Ellis (Eds). (2000). *Ethnographically speaking*. New York: Altamira Press.
- Bullough, R. V. & Pinnegar, S. (2001). Guidelines for quality autobiographical forms of self-study research. *Educational Researcher*, 30(3), 13-21.
- Chang, H. (2008). *Autoethnography as method*. Walnut Creek, CA: Left Coast Press, Inc.

- Gu, Q., Schweisfurth, M. & Day, C. (2010). Learning and growing in a 'foreign' context: Intercultural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Compare*, 40(1), 7-23.
- Jingchuan C. & Pengfei, X. (2019). The comparative study of Chinese and Korean sports culture. *Journal of Asian Society for Health & Exercise*, 1(1), 23-29.
- KBS(2021.02.13.). “한국어 배우러 안 오나요?”...지방대 유학생 급감, 재정부담까지.  
<https://news.v.daum.net/v/20210213070119453?f=o>
- Samaras, A. P. & Freese, A. R. (2006). *Self-study of teaching practices*. New York: Peter Lang.
- Spradley, J. P.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투고일자: 2021. 8. 2.

심사일자: 1차 심사(2021. 8. 8~8. 9), 2차 심사(2021. 8. 10~8. 28)

게재 승인(2021. 8. 30.)

필자성명: 장 샤오항

소 속: 경상국립대학교 체육학과 석사과정

최종학력: 경상국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

관심분야: 스포츠교육학, 유학생의 문화적응, 질적연구

E - mail: jiangxiaohang@naver.com

필자성명: 홍 덕 기

소 속: 경상국립대학교 체육교육과 부교수

최종학력: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스포츠교육학 박사

관심분야: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인권, 질적연구

E - mail: deockkihong@gnu.ac.kr

---

## 【Abstract】

### A Collaborative Autoethnography about Kinesiology Master Program Experience in South Korea from A Chinese Graduate Student's Perspective

Jiang, Xiaohang

*Graduate studen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ong, Deockki

*Associate professo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Kinesiology master program experience in South Korea from a Chinese graduate student's perspective. To this end, this study used collaborative autoethnography. Specificall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research note, individual interviews, and related documents for one year. The data were analyzed based on content analysis, inductive and deductive coding procedure. For the trustworthiness of this study, triangulation, member checking, and expert meeting were conduc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becoming beginning researcher (chronological view)' which revealed 'an alien's adaptation to graduate school' and 'a difficulty to conduct research as a foreign student.' Second, 'joining academic community (relational view)' which revealed 'academic adviser and me: the mentor-mentee relationship,' 'graduate school colleagues and me: another family,' and 'me from internal view: living as an alien.' Discussion and future suggestion were provided. This study implies that international student's graduate school experience to become a beginning researcher need to be carefully considered.

**Keywords:** Chinese graduate student, collaborative autoethnography, academic community, graduate school program, Kinesiology